

공군, CN-235 수송기 도입 인도네시아 IPTN제

인도네시아의 IPTN사가 한국 공군에 CN235기종 14기를 납품키로 결정, 이중 8대를 먼저 공급키로 했다고 英 Flight International지가 보도했다.

동 주간지는 한국 공군은 97년부터 8대의 CN235기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금액 중 약 50%인 1억달러 상당을 한국산 장갑차를 수출하는 바터무역(Barter-Trade)의 형식으로 금액을 지불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갑차는 대우중공업에서 제작한 보병 공격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동 장갑차를 구입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러, SU-27생산권 중국에 판매 레이더등 타구매도 교섭중

러시아는 약25억달러 규모로 SU-27의 생산권을 중국에 판매할 것이라고 미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 지가 보도했다.

이와함께, 동지는 미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려, 2기의 다른 중국전투기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150-200개의 레이더구매를 위한 또 다른 거래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SU-27 25대로 구성된 인민해방군 공군연대를 보유하고

고 있으며 몇몇은 2좌석 훈련기이다. 동 구매는 약 10억달러상당의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은 이번의 계약에 근거하여 SU-27로 구성된 2개의 추가 연대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만일 동 계약으로 중국의 SU-27 생산이 성공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72-78기의 추가분의 생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관계자는 중국의 생산권 구입 및 생산결정은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우선 러시아로부터 완제기, 키트조립을 거친후 중국내에서 생산기로 하였다. 조립라인은 45년간은 중국산은 생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로부터 부품을 도입하여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 국방부 관계자는 협상의 세부사항은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만, 미·불전투기 구매 F-16, 미라지 등 210기

중국의 잇따른 대만 인근 해역군사훈련으로 양안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정부는 지난달 사상최고액의 방위지출이 포함된 96-97회계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오중립 대만정부 대변인은 96년 7월 게시되는 이번 회계년도 예산이 전회계년도보다 68% 증가한 1조2천1백20억대만달러(미화 4천4백

10억달러)로 편성했으며 이중 국방지출은 사상최고액인 2천5백53억대만달러(미화 93억달러)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95-96회계년도 대비 38%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에서도 21%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1천6백62억대만달러(미화 21억달러)의 특별예산을 승인했으며 이중 5백82억대만달러(미화 21억달러)를 지출, F-16 전투기1백50대와 프랑스제 미라지전투기 60대를 구매키로 했다.

미, 무인전투기 개발 상당한 비용절감기대

미국방부 연구소는 전투기 비용을 줄이고 장거리 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전투조종사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전투기를 구상중에 있다고 美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지가 보도했다.

동 지에 따르면 이 구상은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 약 1년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동 연구는 위험한 전투에 투입할 무인항공기의 개발을 위해 수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ARPA의 무인 전술항공기(UTA) 프로젝트는 전투시 동 항공기의 조종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적기가 사용할 무기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은 여전히 조종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의 개발

은 전적으로 비용절감효과와 성능에 달려 있다.

ARPA측은 무인전투기 개발의 장점을 다음 몇가지로 분석하였다.

① 만일 조종사가 없다면 무게감소와 조종석에 장착되는 장치를 없애므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전투에서 조종사가 없다면 위험한 전투도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과감히 전개시킬 수 있다. 조종면에서도 항공기의 경우 20G까지 견딜수 있는 반면 조종사는 10G밖에 견디지 못하므로 조종사가 없다면 더 큰 기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조종사의 무게 대신에 컴퓨터를 장착하면 많은 분량의 정보를 주위의 정찰기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순항미사일의 임무를 대신하여 UTA를 적진의 가까운 곳까지 접근시켜 무기를 발사케 함으로써 장거리용으로 사용되는 많은 부분의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이러한 비용절감으로 UTA의 성능향상을 위한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

ARPA측은 UTA가 실전에 배치된다면 지상에서는 워크스테이션급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종하게 되며 비행훈련 대신 시뮬레이션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즈사,

MTI/SAR 군정찰용으로 채택

美 휴즈사(Hughes Aircraft Company)는 미군의 ARL-M(Airborne Reconnaissance Low-Multification)시스템과의 통합용으로 MTI/SAR(Moving Target Indicator Synthetic Aperture Radar)가 채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MTI/SAR은 미군이 금년말 모호크(Mohawk) 정찰비행단의 퇴역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배치될 예정으로 있으며 2대의 MTI/SAR 정찰 시스템이 미육군의 RC-7B기의 통합에 의해 주문되었다.

MTI/SAR은 고해상도 레이더로 HISAR(Hughes Integrated Synthetic Aperture Radar System)을 기반으로 개발된 장치이다.

함모 적응성 시험 프랑스, 라팔 전투기

프랑스의 닷소(Dassault) 라팔 전투기의 해군형인 M01기가 미국 뉴저지주의 해군시설에서 계속된 항공모함 적응시험을 끝냈다고 미국 군사소식통이 전했다.

동 전투기는 항공모함상에서 캐터필드에 의한 함상 발진이나 비행갑판에서의 착함등 해군형의 독특한 조건을 육상 모의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대체로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전하고 있다.

M01기는 추가시험을 위해 남부프랑스의 해군기지 시험장으로 보내지는데 프랑스 해군에 대한 동전투기 납품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실전배치는 99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재정 형편에 따라 더 늦어질지도 모른다고 한다.

미, 영국 참여에 양해각서 교환 JAST개발 계획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통합선진공격기술(JAST)프로그램에 영국도 참여할 것을 결정한 미·영간의 양해각서가 교환되었다고 영국의 군사소식통이 전했다.

이 양해각서(MOU)조인에 따라 영국은 동계획의 실증단계에 가서 비용의 10%상당인 1억 3천만 파운드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JAST프로그램은 3개팀으로 나누어 통상 이착륙기(CTOL)과 단거리·수직이착륙기(STOVL) 2종등 세 가지 시험기를 만들어질 계획이다.



닷소 라팔 해군형 전투기